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 신년하례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합장하고 있다.

“전통문화 발전 등 공약 소홀함 없을 것”

이명박 당선자 종단협 신년하례법회서 밝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지관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현화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조계사 주지 원화 스님의 개회선언에 이어 종단협 사무총장 흥과 스님의 축원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송년의 해와 신년의 해가 다른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의 마음이 분명 다르기 때문”이라며 “하늘에 해와 달이 없으면 하늘이라 할 것이 없듯이 신년에 새로운 다짐이 없다면 신년이라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관 스님은 “지나온 길에 대한 집착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더욱 살피어야 하며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인사말

을 통해 “대선후보 시절 대덕 큰스님들의 불교적 가르침과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세계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열었다. 또한 이 당선자는 “서산 대사는 눈덮인 벌판을 힘부로 걸어가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오늘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을 되새겨 5년 동안 후손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색, 계’ ‘색즉시공2’ 등 불교적 이미지 사용 대중영화 창작의 자유? 불교 왜곡?

불자인 석정희(38세·회사원)씨는 영화 ‘색, 계’를 봤다. 영화는 1940년대 중국을 배경으로 미인계를 써 친일파 핵심인물인 정보부 대장을 암살한다는 줄거리였다. 그러나 ‘색, 계’라는 제목이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인 만큼 내용이 불교적이지는 못했다.

불자 김건우(42세·개인사업)씨는 영화 ‘색즉시공2’를 보고 불쾌했다. 색시 코미디물인지는 알고 봤다. 하지만 ‘반아심경’ 구절을 차용한 ‘색즉시공’은 러닝타임 내내 노골적으로 ‘색’에만 집착했다. 굳이 ‘공’을 찾자니 한바탕 웃고 남는 것이 없어 공허하다 정도였다.

최근 개봉된 소매치기를 다룬 영화 ‘무방비도시’에는 천수관음이 등장한다. 소매치기단 두목 백장미(손예진 분)가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분이 천수관음”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지만, 연이어 보여지는 그녀 등에 그려진 천수관음 문신은 마치 소매치기 신이 천수관음인 듯한 착각도 불러일으킨다.

대다수 불자들은 영화의 불교 소재 사용은 반가운 일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를 알리기 위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더라도 오해와 왜곡의 소지를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영화 매니아인 한 불자는 “저예산 코미디 영화가 현재 한국 영화 시류”라

고 지적하면서 “영화 ‘색즉시공’은 오락성 영화에 고귀한 이미지를 담아 비싸게 보이고 싶은 일종의 역할”이라 비판했다.

‘색즉시공2’의 윤태운 감독은 “불교 편하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한 뒤 “남녀 간 사랑에서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적절히 표현할 구절을 찾다보니 <반아심경> 구절이 채택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다수는 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창작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송희복 교수(진주교대)는 “현대 문화현상의 키워드는 소통이다. 이것은 성과 속의 소통, 불교와 비불교의 소통이다. 열린 불교를 위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산업에 대한 교계의 미약한 기반이 더 큰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해곡스님(불교언론위원회)은 “미국에서는 달러가 라마 영향으로 많은 불교 영화가 제작된다. 리처드 기어 등은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불교 영화 기반이 약하다”고 지적한 뒤 불교영화제도 없고, 한국 영화산업에 교계의 투자 등이 전무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인재발사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원호 스님(쌍계사 승가대) 교수는 “불교적 소양을 갖춘 영화 감독·시나리오 작

가 등이 많이 배출돼야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불교가 배경이 된 영화 중에는 ‘달마야 놀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 재미와 감동을 준 영화도 많다. 하지만 종교적 배경을 둔 영화가 흥행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 요즘은 제목이나 내용에 부분적으로 담기고 마는 경우가 많다. 또 상식을 깨고 고정관념을 뒤집는 트렌드에 발맞춰 성스러운 이미지를 희화화해 더 큰 자극을 주고자 발칙한(?) 상상들이 계속 시도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성(聖)과 속(俗)의 경계에 서 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종섭 기자



허허당의 세상 만사

■ 순결한 성전

잡초는 몇 번을 뽑혀도 다시 고개를 들지만 꽃은 단 한번을 뽑혀도 다시 고개를 들지 않는다. 마치 고귀한 사람이 단 한번의 상처로 죽어가듯이

태릉 선수촌 법당 재개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태릉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이 재개원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충)은 1월 23일 오후 1시 태릉선수촌 필승주체육관 1층에서 ‘선수촌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선수촌 법당은 그간 시설낙후와 관리 소홀로 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번 선수촌 법당 불사는 지난해 포교원에 포교기금을 기탁한 한마음선원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태릉선수촌 필승주체육관 2층에 마련된 선수촌 법당은 70여 평 규모로, 50여 평의 법당과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형 기자

비리·부정부패 종단 ‘꼼짝마’

교단자정센터 초종단 감시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각 종단들의 비리나 부패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초종단적인 감시기구를 설치하며, 종단의 호법부서를 거치지 않고 즉각 사회법으로 대응하겠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 교단자정센터는 1월 16일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교단자정상담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 상담소는 종교 교단의 청정성

회복을 위한 각종 비리 제보를 접수한 뒤 대책을 마련하고, 민원과 상담 청구역할도 할 예정이다. 또한 제보자 보호 상담을 비롯해 법률대응 자문, 요인 청렴정보 DB관리 등도 맡는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계 4대 종단을 대상으로 자정 실천을 위한 투명사회협약의 참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상담소 현판식에 이어 각 종단지도자들에게 대한 청렴성과 신뢰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년계획도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교단지도자 청렴성 평가와 인증시스템 구축, 자정네트워크 구축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단자정센터는 ▲대중이 참여하는 108평가단 조직 ▲불교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 ▲교

단지도자 청렴성 신뢰도 평가지표 개발 ▲요인 청정관리 시스템 구축 ▲청정보시금 확보 ▲국고보조금 투명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02)2278-3417 김주일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
 기사·영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회 | 031)387-5400 | 팩 스 |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영광회 변호사)
 017-535-0385 (장기경 변호사)
 010-4488-3740 (김태진 변호사)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인사 지장 목탱화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